책이 있어야 할 곳에 책을

김태준
동국대 국문과교수

속담에 "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많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먼저 사람이 만든 책이 많다는 전제에서 하는 말이다. 그러나 또한 그 많은 책들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과 기대를 대변한 말이기도 하다. 책의 기능이 반드시 사람을 만드는데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사람을 만든다"는 말자체에 대한 시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책의 사회적 역사적 중요성을 지적한 뜻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사람을 만드는 책은 또한 글을 쓰는 사람과 출판을 맡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요사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남한의 출판물만으로도 5400여 출판사에서 한해에 2만종 이상의 신간도서가 쏟아져 나온다고 한다. 이 많은 신간도서들이 모두 "사람을 만드는 책"으로 만들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이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두 이런 책임의식으로 책을 만든다면 독서대중이 모두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야말로 책이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는 운동이 아닐 수 없다.

일찍이 북학파의 지도자였던 洪大容은 세속학문의 타락을 책이 너무 많은 까닭이라고 진단한 일이 있었다. 불란서에서도 비교문학을 일으킨 학자들이 맨처음 일으킨 운동은 책의 비평적 목록을 만드는 일에서 시작되었다. 좋은 책을 가려 뽑고 나쁜 책을 비판해 주는 서평작업, 비평작업은 책을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는 운동이다. 이것은 책을 만드는 일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다. 오늘날처럼 비슷비슷한 내용의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현실에서, 올바른 서평과 비평이 아니면, 자칫 출판문화의 활성화가 상업주의 출판공해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헛이름 때문에 베껴내는 허학의 풍토와 가득찬 상업주의로부터 선량한 독자와 출판문화를 보호하는 지름길은 이 책을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책이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책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갖도록 하는 일이다. 도서관의 확충과 도서관법의 정비는 물론, 한국어 책에 굶주린 해외동포와 동구권에 책보내기 운동도 그 좋은 방법임에 틀림없다.

실제로 필자가 찾아갔던 레닌그라드의 동양학연구소에는 일본책이 주종을 이루고, 한국학 책은 북한책이 약간에다 남한쪽 책은 너무나 초라했다. 또 작년 겨울 방문했던 북경외국어대학에는 3만권 이상의 일본 기증도서가 훌륭히 진열되어 있었고, 우리의 책은 전무했다.

이번 여름 동경이 가까운 가와사끼(川崎)의 재일 조선인 마을에서도 책이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지 못한 안타까움으로 더욱 가슴아팠다. 이곳의 민족운동 지도자인 李仁夏목사는 재일동포와 일본인의 문화적 만남을 위해서 만남의 집(ふれあい館)을 세웠다. 이곳에는 한 교포가 사재를 털어 사놓은 한국관계 일본책이 3천여권 소장되었다. 그러나 정작 우리 문화를 소개할 한국책은 거의 없었다. 개인적으로 얼만큼의 우리책을 이곳에 보내기도 했지만, 일본책 수만큼의 한국책이 이곳에 보태진다면 이목사가 일생을 바쳐 애써온 이 만남의 집의 역사는 새롭게 바뀔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책이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는 운동은 이렇게 책을 만드는 일과 필요한 곳에 보내는 일로 출판문화가 새로운 삶의 운동으로 뛰어넘는 역사로 이어질 것이다.

출판저널
1990년 9월 20일 제 69호
격주간·매월 5, 20일 발행
THE KOREAN PUBLISHING JOURNAL, biweekly

대담서평 2 확신으로 빛나는 그 활화산의 壯觀 — 장석주
「황혼과 전위」「방황, 그리고…」의 高銀과 함께
초점 4 중국고전 「삼국지」 '리바이벌전쟁'
10여개사서 각축 벌여… 「수호지」 등에도 불똥
리포트 6 漢字문화권 아동문학의 발전방향 모색
뉴스 7 역사교양지 월간 「역사산책」 창간
서평 8 아들러 「열가지 철학적 오류」 — 강영계
토리고에 「일본사회」 — 이만갑
9 국어국문학회 「방언학의 자료와 이론」 — 김병욱
스웨글러 「소비자와 시장」 — 김기옥
10 라이언스 「사진가의 사진론」 — 육명심
윤후명 「약속없는 세대」 — 우찬제
저자인터뷰 11 "풍수지리설은 동양고유의 '사상'이다"
「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함인가」 낸 최창조 교수
출판화제 12 서점가 휩쓰는 '아포리즘' 바람
13 새삼스레 관심 끄는 사회민주주의
이색신간 14 개화기 이후 우리 '옷치레'의 변천사
「한국양복 100년사」와 「한국여성양장변천사」
신간다이제스트 15 외국인이 파헤친 한국경제의 성장 動因
스티어즈 외 지음 「한국의 재벌」
시론 16 국가기록물 관리체계와 공개문제 — 양태진
저작구상 17 「언론윤리법제론」 — 유일상
이 책 그 사람 18 시집 「실연가」 펴낸 김재진씨
「나를 움직인 이 한편의 영화」 낸 박숙희씨
19 「함께 읽는 우리 한문」 낸 최성수씨
「훌륭한 자녀 현명한 부모」 낸 이유아씨
화제의 인물 20 국내최초로 개인전집 낸 만화가 김수정씨
서점가 순례 21 '거리의 도서관' 꿈꾸는 춘천 청구서적
연재기획 22 세계의 추천도서 ㉓ — 이중한
동양서 추천목록의 빈 터
세계의 출판 24 일본자동차산업의 미국시장 침투·외
독자서평 26 우봉규/김봉인/양희/이승이
28 새로나온 시집
29 어린이책 들춰보기
30 신간안내
38 200자 안내/화제의 책/이색출판
40 신간목록
47 일간지 출판기사색인
48 프리즘 (김수경)/독서퀴즈/정기구독안내

표지사진/구본창